

일본과의 갈등 - “일제강점기,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며,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었고, 일본의 침탈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국제법적 반박과 문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당시 국제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확정지으려 했지만, 이는 불법적인 침탈이었고, 한국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응해왔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침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외교부 독도



시마네현고시 제40호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일본과의 갈등 - “왜곡된 시선에 맞선 진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해로 선언하며,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잘못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다 -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라고요.

출처: 연합뉴스 기사, 뉴데일리 기사

關係に基づいた共同利用や開発が強く求められている。

領土をめぐる問題 日本の領域は、外国との交渉や戦争の後に結ばれる条約などによって、時代とともに変化してきた。

択捉島・国後島・色丹島・南千島群島からなる北方領土は、北海道に属する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日本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おいて樺太(サハリン)の南半分と千島列島を放棄したが、北方領土の4島はその放棄地に含まれていない。しかし、1945年に一方的に侵襲してきたソ連に占領され、現在もロシアが不法に占拠した状態となっている。日本はソ連やロシアに対してその返還を求め続けてきたが、いまだに実現していない。

日本海にある竹島は、1905年に明治政府が国際法に従って島根県に編入し、自国の領土とする考えを公式に示した。しかし韓国は、1952年に海洋への権利を唱えて一方的に公海上に境界線を引き、竹島を不法に占拠している。日本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共同提訴をたびたび提案してきたが、韓国は海洋警察隊を駐留させるなど、不法占拠を続けている。

含む日本の領土が定められた。



竹島(島根県, 隠岐の島町) 本州から約211kmの距離にある。島の周辺は水産資源が豊富である。



竹島(島根県, 隠岐の島町) 本州から約211kmの距離にある。島の周辺は水産資源が豊富である。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출처: 국방부, 『한국전쟁 2년지』, 1953. C148쪽.

이승만 라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도 말하고 있다.

- “독도는 우리땅”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SCAPIN 제677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GHQ)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독도(Liancourt Rocks)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예외 지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즉,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SCAPIN 제1033호 (1946년 6월 22일)

일본 어선들의 활동 구역을 제한하면서,

독도 주변 해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독도 주변 해역도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광복 직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광복 이후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는 주장을 뒤집는,

국제적 공식 문서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복제본)

자료제공 : 독도박물관

SCAPIN 제677호 관련 지도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출처: 한국경제 기사, 위키트리 이미지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섬을 지키는 이름없는 영웅들”

독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바다 위의 외딴 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달고, 손길이 머문 살아 있는 땅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故 김성도 씨 부부'입니다.

그들은 독도의 첫 주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이 땅은 대한민국의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 경비대원들은 하루 24시간,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봉사자들과 시민단체들 역시 묵묵히 독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쓰레기를 줍고,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며,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독도를 아끼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지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기에, 독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섬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제 4장

기억 위에 세운 미래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